

new gallery opening in Seoul

MEYER RIEGGER WOLFF



Hannam, Seoul

SAVE THE DATE: **September 2025**

목차:

1. 소개	3
2. 창립 갤러리 소개	3
(1) 마이어 리거	3
(2) 갤러리 조슬린 울프	5
3. 마이어리거울프(Meyer Riegger Wolff): 서울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7
4. 갤러리 스페이스: 한국 건축가 최욱과의 협업	8
5. 전시 프로그램	9
6. 팀 소개	12
7. 관람 안내	13

마이ერი거울프 갤러리 MEYER RIEGGER WOLFF 2025 년 9 월 오픈

지난 10 년간 마이어 리거(Meyer Riegger)와 갤러리 조슬린 울프(Galerie Jocelyn Wolff)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활동 기반을 넓히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두 갤러리는 중국, 홍콩,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각자의 전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선보였다. 지역 미술관과 갤러리, 문화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컬렉터 및 아트페어 등과 맺어 온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아시아의 가능성을 발견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두 갤러리는 2025 년부터 힘을 합쳐, 서울에 새로운 갤러리 ‘마이ერი거울프(Meyer Riegger Wolff)’를 설립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갤러리 소개

마이어 리거 (Meyer Riegger)

1997 년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시작된 마이어 리거는 현재 베를린과 바젤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 중심의 전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념미술 및 동시대 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명성을 쌓아왔다. 초기에는 모이저(Meuser)와 조나단 몽크(Jonathan Monk) 등 개념미술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였으며, 2000 년대 들어서는 카틴카 보크(Katinka Bock), 미리암 칸(Miriam Cahn) 등 실존적 주제와 퍼포먼스를 탐구하는 작가들로 프로그램을 확장했다. 2008 년에는 베를린, 2020 년에는 스위스 바젤 공간의 개관을 계기로 국제적 활동 범위를 넓히며, 알렉산드라 바흐체치스(Alexandra Bachzetsis), 올라 폰 브란덴부르크(Ulla von Brandenburg) 등 다양한 작가들을 프로그램에 합류시켰다. 최근에는 타미나 아마다야르(Tamina Amadyar), 알마 펠트핸들러(Alma Feldhandler) 등 신진 작가들을 영입하며, 새로운 목소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4 년에는 서울에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열어, 호르스트 안테스(Horst Antes), 지미 드세이나(Jimmy DeSana) 등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왼쪽 토마스 리거(Thomas Riegger), 오른쪽 요헨 마이어(Jochen Meyer). 사진: 올리버 로우라(Oliver Roura)

독일의 마이어 리거는 기획적 감각과 전략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두 인물, 요헨 마이어(Jochen Meyer)와 토마스 리거(Thomas Riegger)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다. 요헨 마이어는 비평적 시각을 견지하며 작가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전시 기획을 선보여 갤러리의 명성에 크게 기여했다. 토마스 리거는 문화경영과 갤러리 운영 두 분야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갤러리의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갤러리의 디렉터 콘스탄체 머피트(Constanze Murfitt)는 10 여 년간 독일 내 갤러리를 이끌어 오며, 전시 프로그램의 발전은 물론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함께 명확한 기획 의도와 세대 간 담론을 바탕으로 한 전시 기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마이어 리거는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신뢰받는 갤러리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호르스트 안테스, 《Ich bin das Haus》, 마이어 리거, 베를린, 2025. 전시 전경. 사진: 올리버 로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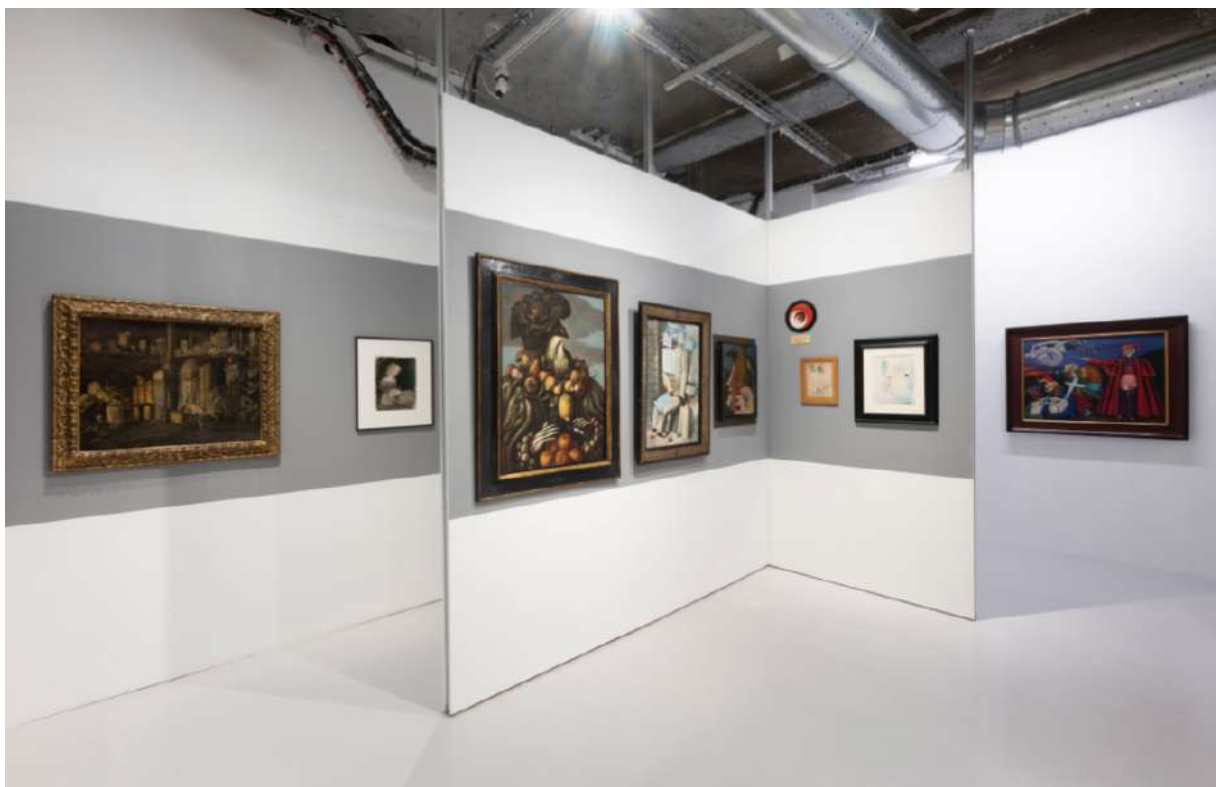
갤러리 조슬린 울프 (Galerie Jocelyn Wolff)

파리에 기반을 둔 갤러리 조슬린 울프는 지난 20 여 년간 동시대 미술에 대한 엄밀하고 신념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신진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하는 동시에 미술사적 중요성을 지닌 작가들의 재조명에 힘써 왔다. 갤러리는 진보적인 미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작품과 아이디어의 순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다. 2025 년 9 월부터는 파리 8 구 마티농 지구로 이전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갤러리 조슬린 울프 설립자, 조슬린 울프. 사진: 앙드레 울프

조슬린 울프는 프랑스 동시대 미술계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윤리적인 접근과 혁신적인 실천을 지지하려는 확고한 태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깊이 있고 선구적인 전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왔으며, 예술에 대해 진보적이고 연구 기반의 관점을 제시하는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 년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예술 문화훈장 슈발리에(Chevalier des Arts et des Lettres)를 수훈했으며, 유럽화랑협회(FEAGA)가 수여하는 창의성과 혁신상(Innovation and Creativity Award)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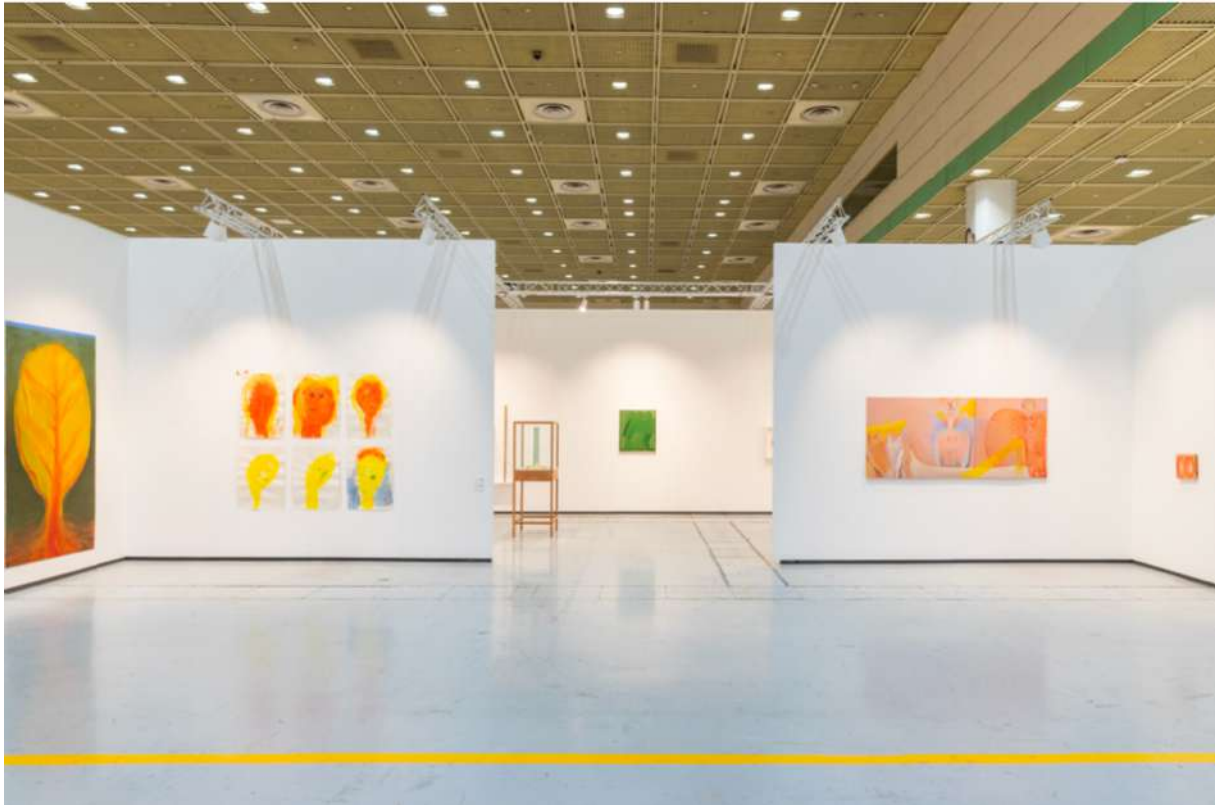
《Transform the world, change life : A Surrealist Library》, 갤러리 조슬린 울프, 파리, 2025, 전시 전경. 사진: 프랑수아 두리

마이어리거울프(Meyer Riegger Wolff): 서울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최근 몇 년간 갤러리 조슬린 울프와 마이어 리거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미술 시장과 긴밀히 교류해 왔다. 아트바젤 홍콩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두 갤러리는 시장내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큐레이터, 미술관 관계자, 작가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해 왔다.

2022 년 프리즈 서울은 두 갤러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스위스 작가 미리암 칸의 강렬한 작품을 중심으로 한 첫 공동 부스는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통해 한국 내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성장세에 있는 한국에서 새로운 컬렉터들과도 접점을 넓힐 수 있었다.

2023 년에는 협업의 폭이 더욱 넓혀, 두 갤러리의 다양한 작가들을 선보이며 개별 정체성을 넘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통합적 전시로 발전했다. 이어 2024 년에는 파트너십을 한층 더 확장하여 두 갤러리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반영하는 대규모 그룹 전시로 변모했다. 같은 해, 마이어 리거는 서울에 임시 전시 공간을 열고 새로운 작가들과 실험적인 전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프리즈 서울 2024 전시 전경. 사진: 갤러리 조슬린 울프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여는 마이어리거울프 갤러리는 두 갤러리가 아시아에서 꾸준히 구축해 온 활동의 연장선이자,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며 이뤄진 협력의 결실이다. 이 새로운 공간은 한국의 고유한 예술 생태계를 존중하면서, 각 갤러리의 작가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은 양측의 전시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융합하고, 세계 동시대 미술 담론과 지역적 맥락 사이의 대화를 유도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컬렉터 층과 빠르게 성장하는 미술 생태계를 갖춘 서울은 이 협업이 전개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향후 파리와 베를린 프로그램 소속 작가들과 함께 한국 및 아시아의 신진 작가들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마이어리거울프 갤러리는 실질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기성 작가와 신진 작가 모두에게 창작과 발표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각 갤러리가 지향해온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반영할 것이다.

갤러리 스페이스: 건축가 최욱과의 협업

마이어리거울프 갤러리는 국내외 갤러리들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남동에 자리하고 있다. 갤러리가 들어선 흰색 외벽에 주황색 포인트가 어우러진 건물은 노출 콘크리트와 중첩된 기하 구조가 특징으로 한국의 건축가 최욱의 설계작이다. 마이어리거울프의 새로운 전시 공간은 최욱이 이끄는 [원오원 아키텍츠\(ONE O ONE Architects\)](#)에 의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울에 위치한 마이어리거울프 외관 전경. 사진: 장미

갤러리 공간은 ‘무게감과 가벼움’, ‘밀도와 여백’ 사이의 건축적 대비를 통해, 사유와 개념 그리고 물질성에 기반한 갤러리의 전시 철학을 반영하고자 했다. 대형 설치 작업부터 개념 작업까지 폭넓은 전시 형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된 공간 구성은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반영하며, 과정 중심적이고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을 추구하는 갤러리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적 랜드마크를 넘어, 문화 중심지에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려는 마이어리거울프의 비전이 구현되는 장소다.

전시 프로그램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마이어리거울프는 마이어 리거와 갤러리 조슬린 울프의 소속 작가들을 비롯해 신진 작가들과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가들의 작업을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다양한 매체와 전시 기획 관점을 통해, 기성 작가와 신진 작가 간의 활발한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개관 첫해에 예정된 전시에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무는 영화 및 미디어 설치 작업으로 잘 알려진 독일 작가 [클레멘스 폰 베데마이어\(Clemens von Wedemeyer\)](#), 프랑스의 젊은 회화 작가 [알마 펠트핸들러\(Alma Feldhandler\)](#), 그리고 20세기 미술에 깊은 영향을 끼친 프랑스 작가 외젠 르루아(Eugène Leroy, 1910-2000)의 독창적인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이자 멜스하이머\(Isa Melsheimer\)](#) 등의 작가들도 소개될 예정이다.

개관전

《지난밤 꿈》(Heute Nacht geträumt / Dreamed last night)

네 세기에 걸친 드로잉의 주제적 접근

마이어리거울프의 개관 전시 《지난밤 꿈》(Heute Nacht geträumt / Dreamed last night)은 4세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가들의 종이 드로잉만을 모아 선보이는 기획 전시이다. 이번 개관전은 갤러리의 예술적 비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개인적 탐구와 공동의 연구가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참여 작가:

타미나 아마디아르(Tamina Amadyar), 윌리엄 아나스타시(William Anastasi), 익명의 작가들(Anonymous artists), 미리암 칸(Miriam Cahn), 마르셀 칸(Marcelle Cahn), 외젠 카리에르(Eugène Carrière), 폴 에밀 콜랭(Paul-Emile Colin), 가스파르 뒤게(Gaspard Dughet), 카미유 오귀스트 가스틴(Camille-Auguste Gastine), 니콜라스 과그니니(Nicolás Guagnini), 안나 레아 후흐트(Anna Lea Hucht), 안나 홀라초바(Anna Huláčová), 제이미 아이젠스타인(Jamie Isenstein), 이레네 코펠만(Irene Kopelman), 에바 코차토바(Eva Koťátková), 로라 라미엘(Laura Lamiel), 피에르 레뤼(Pierre Lélou), 존 밀러(John Miller), 헬렌 미라(Helen Mirra), 조너선 몽크(Jonathan Monk), 니콜라 마리 오자느(Nicolas-Marie Ozanne), 임레 판(Imre Pán), 엘로디 세갱(Elodie Seguin), 파울루 나자헤치(Paulo Nazareth), 산티아고 데 파올리(Santiago de Paoli), 프린츠 골람(Prinz Gholam),

바티스타 비첸티노(Batista Vicentino), 메레트 오펜하임(Meret Oppenheim), 데이비드 소프(David Thorpe), 알마 펠트핸들러(Alma Feldhandler) 등

1. ‘살롱(Salon)’에 대한 오마주:

이번 전시의 첫 번째 핵심은 18 세기 프랑스 살롱의 독자적인 예술 형식에 대한 이자벨 피셰(Isabelle Pichet)¹의 연구²를 조명하는 데 있다. 위의 연구에서 피셰는 ‘타피시에(Tapissier)’라고 불리던 전시 기획자의 역할을 깊이 있게 성찰했다. 매년 파리 루브르에서 개최되던 살롱 전시를 기획하는 인물을 칭하던 ‘타피시에’는 동료 예술가들에 의해 선출된다. 타피시에에는 전시 출품작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빈틈없이 작품을 걸어 하나의 직조물처럼 전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었다. 이러한 전시 방식은 다음 여섯 가지 범주의 명확한 규범을 따랐다³:

- 두슈 아 두슈(touche-à-touche) 방식(작품들이 맞닿도록 촘촘히 배치)
- 취향(taste)
- 조화(harmony)
- 대칭(symmetry)
- 특성(character)
- 위계(hierarchy)

2. 취향의 연결:

조슬린 울프는 가브리엘 드 생토뱅 (Gabriel de Saint-Aubin, 1724-1780)과 샤를 드 생토뱅(Charles de Saint-Aubin, 1721-1786)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이 두 예술가는 여러 차례 타피시에로 활동했으며, 이번 전시는 이들의 작업에 헌정되었다.

3. 18 세기 프랑스 살롱의 동시대적 해석:

이번 전시는 18 세기 프랑스 살롱의 본질을 동시대 드로잉 전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화이트 큐브, 미니멀리즘, 눈높이 설치 등 현대의 전형적인 전시 방식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전시 형식을 제안, 오늘날의 전시 맥락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4. 마이어 리거와 갤러리 조슬린 울프는 지난 20 여 년간 작가들의 예술적 연구를 지지하고, 소속 작가들이 새로운 형식과 매체를 실험하도록 장려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기존의 전형적인 전시 방식에서 탈피한 전시의 구성 방식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고유한 전통과 동시대 미술 담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아시아 미술계와 폭넓은 대화를 생성해 낼 것이다.

¹ Conservatoire de musique et d'art dramatique du Québec. "이자벨 피셰(Isabelle Pichet)." 2025 년 7 월 2 일 접속.

<https://www.conservatoire.gouv.qc.ca/fr/formation-musique/professeurs/pichet-isabelle/>

² 예술가가 연출한 무대미술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2024 년 12 월 4 일부터 6 일까지 모나코의 테아트르 데 바리에테(Théâtre des Variétés)에서 모나코 미술학교 파비옹 보지오(Pavillon Bosio) 주최로 개최

³ 이자벨 피셰, 『The Upholsterer and Discursive Devices at the Salon (1750–1789)』, 에르만 출판사(Hermann Publishing, 2012).

5. 전시의 방법론적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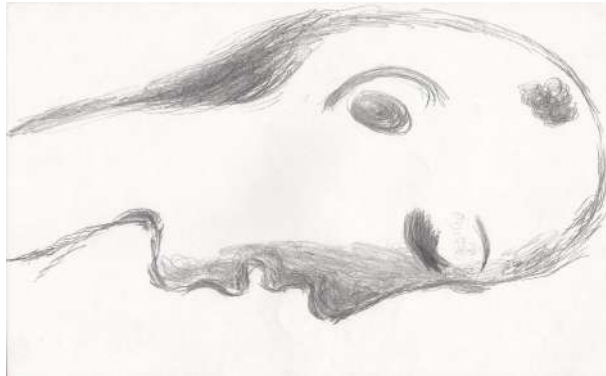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두 개의 방법론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 초역사적 드로잉: 첫 번째 축은 드로잉을 초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독일과 프랑스 두 갤러리가 공동으로 전시를 구성할 때 펼쳐지는 풍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 생토뱅의 살롱에서 영감을 받은 기획 주제: 두 번째 축은 생토뱅의 살롱 전시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별 구성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는 머리, 손, 풍경, 도시 풍경, 정물 등이 포함된다.

6. 다양한 작품 선정:

이번 전시는 18 세기의 희귀한 천문 도상(익명의 펜 드로잉)부터 미리암 칸을 비롯한 동시대 주요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작업을 선보인다.



서울 개관 전시의 작품 중, 테마 '머리(Head)'에 해당하는 작품들.

위: 미리암 칸, <im dunkeln, 25.01.1993>, 1993, 종이에 연필, 25.5 × 36 cm

아래: 프랑스 화파(French School), <Portrait de femme>, 19 세기 후반, 종이에 목탄, 31.5 × 24 cm

팀 소개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연 마이어리거울프 갤러리는 이탈리아 출신 디렉터 가이아 무시(Gaia Musi)가 이끌고 있으며, 한국인 갤러리 어소시에이트 박솔아를 비롯해 베를린의 마이어 리거 팀, 파리 본사와 상하이 위성 오피스의 갤러리 조슬린 울프 팀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마이어 리거와 갤러리 조슬린 울프의 한국 동시대 미술계와의 협업은 2022 년 프리즈 서울 참가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무시는 한국 문화계 내에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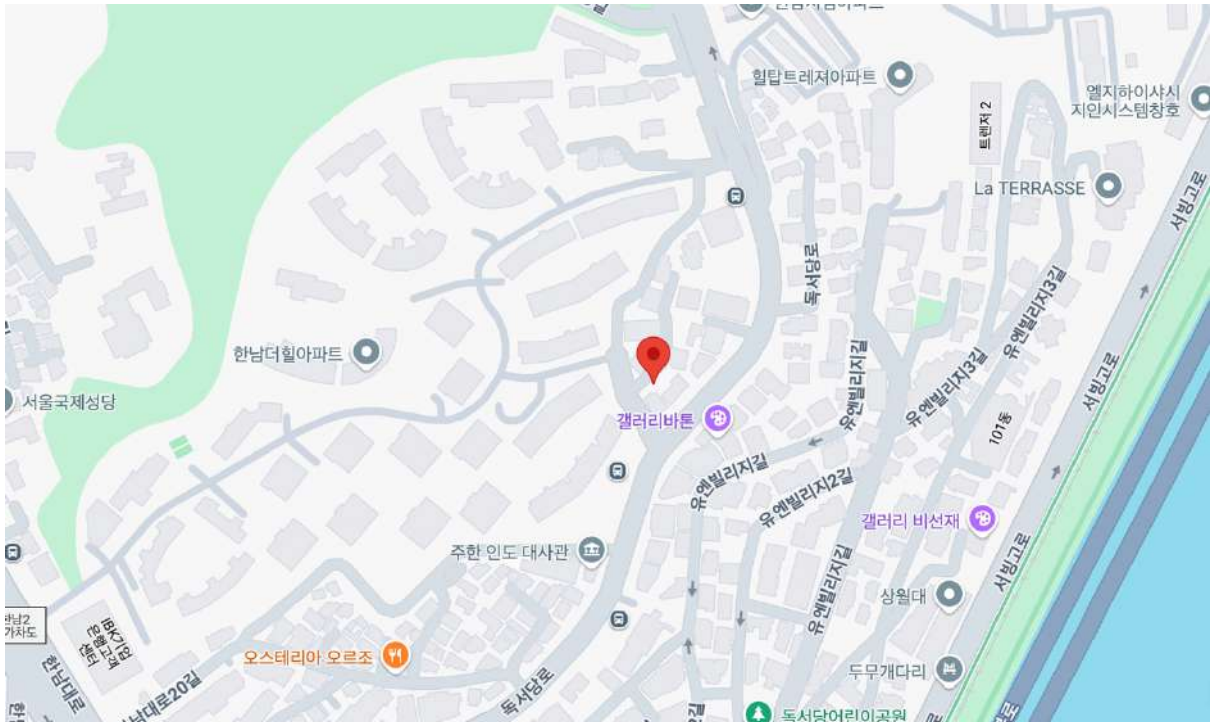


가이아 무시(Gaia Musi), 마이어리거울프 갤러리 디렉터 및 공동 대표

서울 디렉터이자 공동 대표인 무시는 아시아 미술 시장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이어리거울프를 이끌 예정이다. 그녀는 파리의 갤러리 조슬린 울프에서 6 년간 근무하며 중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고, 전반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갤러리의 입지를 확장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상하이에서는 4 년간 거주하며 갤러리의 중국 오피스를 운영했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미술계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파리 소재 국립 동양언어문화대학교(INALCO)에서 중국어와 문화를 전공한 무시는 학문적 기반 위에 동시대 미술에 대한 열정을 더해, 아시아 미술계의 복합적인 예술 및 미술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

무시는 개념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조각, 설치, 사진 등 매체에 대한 세심한 감식안을 바탕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형성해 왔다.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작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온 경험은 그녀의 큐레이션에 이론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을 더하며, 기존의 내러티브나 공간적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 실천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행보로 이어졌다. 이러한 직관적 이해는 마이어리거울프 서울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 동시대 미술 생태계 안에서 예술가와 관객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람 안내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29 길 6, 1 층 (한남동)

운영 시간: 2025 년 9 월 3 일부터, 화-토, 오전 10 시 - 오후 6 시

인스타그램 & 웹사이트: 추후 공개 예정

연락처:

가이아 무시(Gaia Musi, 디렉터 및 파트너) - g.musi@meyer-riegger-wolff.com / 010-8558-6557

박솔아(Solah Park, 갤러리 어소시에이트) - s.park@meyer-riegger-wolff.com / 010-8627-0801

이벤트:

- 기자 간담회: 2025 년 9 월 1 일 (월) 오후 4 시 - 5 시
- VIP 오프닝: 2025 년 9 월 1 일 (월) 오후 6 시 - 8 시
- 한남 나이트: 2025 년 9 월 2 일 (화) 오후 5 시 - 10 시

*2025 년 9 월 3 일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일반 관람이 가능합니다.

*마이어리거울프 갤러리는 프리즈 서울 2025 에 참여합니다. 부스 A24 에서 만나요!

*프리즈 서울 2025: 2025 년 9 월 3-6 일

[고화질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h66FSCqrb70muDpX48nCs2SQWXcfAbz?usp=drive_link